

# 지역축제에 찬송가 공연이 웬말?

## 청도기독교연합회 공연에 시민 향의 소동

청도군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지역행사인 청도반시축제로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0월 20일 폐막식 프로그램인 추수감사음악회를 청도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면서 일어난 일로 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번 추수감사음악회에는 목사이자 가수인 윤희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옥희를 비롯해 청도군 기독교 남성 찬양단, 청도군 기독교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특히 청도군기독교남성찬양단과 기독교연합합창단 등은 '성자들의 행진', '주의 빛을 비취소서' '선하신 목자' 등의 찬송가를 불러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평위는 해당 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서를 받았다.

조계종 중평위는 "청도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찬송가를 듣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역축제 중 일부인 추수감사음악회를 청도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독교연합회는 3년째 청도반시축제의 추수감사음악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축제에는 군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반시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도기독교음악회가 진행되는 가을밤의 세



중평위 청도군청에 공개질의서 발송 청도사암연합회 11월 18일 항의 방문도

레나데'라는 문구를 버젓이 표기 특정 종교를 간접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불교계가 주관하는 청도유등축제 예산 지원에 기독교계가 이의를 제기하자, 청도군청이 반시축제 폐막프로그램 중 일부에 추수감사음악회를 만들어 2011년부터 청도기독교연합회에 행사진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등축제를 주관하는 청도사암연합회는 "유등축제는 불교계가 전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행사비의 절반은 불교계 자비로 나머지 절반은 군에서 지원 받고 있다. 유등축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문화축제로 지금까지 6년을 진

행해 왔는데 종교축제라고 항의 받아 본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청은 추수감사음악회는 청도반시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공연 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다. 다소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행사의 음악회로 인정했다. 당일 행사 중 관람객 3명이 축제운영본부를 찾아와 가벼운 항의를 한 정도였으며, 주최 측은 물론 공연단체인 기독교연합회에서도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청도사암연합회는 11월 18일 청도군청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hs@hyunbul.com

# 응공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대법회

## 11월 11일 총본산 동명사서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명진 석법운) 창종 2주년기념 대법회가 11월 11일 총본산 동명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종단 소임스님, 말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법회는 대덕 문하생 5인들의 마당놀이, 바라자법, 시식 삼신이운 등의 식전행사로 시작했다. 이후 개회식에서는 종단 비구니 스님들의 육법공양, 종사이운 후 비구니원장 정명 스님의 발원문 낭독 뒤 원로의 장 보은 스님의 개회 선언이 이어졌다.

실선 스님(법규위원)은 봉행사에서 "한 마음 한뜻으로 세계평화와 불교증진을 위해 수행종단으로 거듭나 21세기 한국불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이 창종 2주년기념 대법회를 11월 11일 동명사에서 봉행했다.

를 선도하는 불교종단으로 자리매김 해나가자"고 인사했다.

이어 종정 법운 스님은 "부처님께서 입멸 후 수 많은 종파와 계파가 출현다가 다시 멀고 성했다. 다만 시절 인연이 닿지 않

아서 종파와 계파·문종을 따지는 것이지 처처법당이라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산 곳이 없으니 종도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명예를 벗어 버리고 무애를 부릅시다"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 맑고 향기롭게 연탄 1만장 기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에서 연탄 1만장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맑고향기롭게는 11월 15일 부산 사하구청장실에서 기부식을 갖고 봉사자들과 함께 신명 1동 경로당앞 주차장에서 사랑의 연탄배달을 실시했다. 이 연탄은 지역의 독거노인, 생활 곤란 세대 등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에 쓰여진다. 특히 이번에 기부된 연탄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이 개인비용을 들여 기부한 것이다.

## 삼광사 24일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

삼광사가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며 하나가 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삼광사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 음식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한마당'이 11월 24일 삼광사에서 열린다.

삼광사는 "음식은 누구나 쉽게 어울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매개로 세계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즐겨먹는 음식을 통해 보다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한마당 축제에 동참하여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 나가자"며 취지를 전했다.

프로그램은 △세계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 △한국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복지시설에 전통음식 나눔 행사△한국전통놀이 체험 △국내인과 외국인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삼광사에서는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를 기념하여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 음식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한마당'이 11월 24일 삼광사에서 열린다.

삼광사는 "음식은 누구나 쉽게 어울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매개로 세계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즐겨먹는 음식을 통해 보다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한마당 축제에 동참하여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 나가자"며 취지를 전했다.

프로그램은 △세계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 △한국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복지시설에 전통음식 나눔 행사△한국전통놀이 체험 △국내인과 외국인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된다.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불상은 부처님 상징하는 중요한 조형물

불상은 탑과 더불어 부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기원후 1세기경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불상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와 더불어 불교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사찰의 중심에 자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었을 시기쯤 되면 인도는 물론 불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 불상의 제작이 활발해진다.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마라난타는 배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오다 배가 난파되어 영광 범성포로 도래하였다고 하는데, 그때 싣고 왔던 것이라고 전해지는 불상이 아직까지도 범성포에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 남아있는 황룡사터

에 가면 금당자리에 아직도 삼존불상을 모셨던 좌대가 남아있다. 신라 최고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의 본존불인 장유존상의 자취이다. 또한 불교의 성지인 경주 남산에 가면 수많은 마애불이 남아있어 신라 시대의 불교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황금의 나라, 신라' 전에는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 전시되고 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이 불상을 보고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모습"이며, "얇은 자세이지만 정적이지 않고 긴장감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만든 불모가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고뇌하였고, 자신의 예술혼을 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재료가 좋아지면서 FRP와 같은 재료로 만든 불상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현대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불상들 가운데에는 훌륭한 작품들도 많지만, 쉽게 만들어 조잡하고, 개성이 없는 복제품들은 한국불교미술의 우수성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요즘 사찰에 가면 수각주변이나 탑의 기단과 옥개석, 그리고 석축의 틈새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불상이나 동자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불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사서 가져다놓은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신앙행위의 결과이다. 불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신앙의 대상이며 존엄의 극치이다. 불상을 모시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불상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사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량생산으로 생산된 불상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갉아 먹는다. 따라서 사찰에서 불상이 쉽게 취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진은 충청북도 초사찰

##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 조왕탱화

부림의 신인 조왕신(부림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龕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龕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가리개형, 괘불형

###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 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쫄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서울(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